

• 살아가며 겪으며 •

고유한 풍습의 보고(寶庫) 그리운 '탐라국'을 생각하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오영택

제주도는 4면이 바다인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것이 많아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된다. 육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열대성 기후와 경치는 외국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은 40여년 전 필자의 모교 교수로 재셨던 이문영 교수(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통해 독특한 제주도의 고유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부터다.

제주도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장가 든 아들과 늙은 부모가 같은 담 안에 살지언정 살림은 따로 분기해 산다. 부모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지식들에게 봉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몫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필자에게 첫 관심으로 다가온 것은 이와 같은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 시에는 분기해서 살지만 옛날에는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삼강오륜(三綱五倫)

때문에 유교문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억지 효도가 대부분이었다.

당시에는 불효 막심한 행위로 여겨졌을 이같은 행위가 어떻게 지역문화로 승화됐을까?

얼마전 제주도에 대대로 살던 직원이 전출되어 왔길래 장가 든 아들과 늙은 부모가 같이 살아도 살림은 따로 하는 제주 풍습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처음엔 나쁜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솔직 담백하고 가식 없는 독창적인 풍습으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유의 문화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변화의 물결 속에 점차 고유의 문화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유한 문화나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외부영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독창적인 문화 형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는 어떤가! 수많은 외침과 민족간 싸

음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즉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인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종전에는 시간과 외부 영향을 피동적으로 받아 본의 아니게 변화되었지만 현재는 국제화, 지구촌화 물결에 능동적으로 변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변화는 좋은 것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 제주도를 국제관광 특구로 만들어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고, 모두가 세계화에 매혹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면 제주도는 육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마도는 부산에서 맑은 날에는 보인다고 한다.

제주도는 거리 상으로는 중국보다 일본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탐라국 시절 그 이전부터 중국인이 많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민속음악 중에 제주도의 오돌또기 타령과 유사한 민속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제주도 방언 중에 늬뻬(무), 처나반(천장)은 중국어로 “늬뻬”는 “뤄뻬”로 “처나반”은 “텐화반”으로 발음하고 있다.

제주도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수적으로 많으니 일본인들도 같이 살았겠지만 일본인들은 제주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왜 자기 영토로 귀속시키지 못했을까?

대만도 근세에 와서야 중국으로 되었다. 아세아 대륙만을 쟁겨도 충분했을 것이며, 제주도를 중국영토로 귀속시킬 필요성이 덜 했을 것이다.

한때 만주벌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더구나 해양생활이 발달 안된 우리 조상은 대마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요즘도 제주도를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해상왕국 탐라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곤 한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후, 환경, 문화 등을 가진 제주도가 우리의 영토인 것을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아시아 지도를 다시 펴 보며 이런 생각에 잠긴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민족적인 정통성과 특이성이 점차 퇴색되가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름다운 섬 제주도가 고유어 말과 전통을 언제까지나 지켜 나가길 말이다.

